

건국대논술

인문계(인문사회 I · 인문)

목차

2026학년도 인문 (KU논술우수자)	3
문제 1	3
문제 2	6
2025학년도 인문사회 I (KU논술우수자)	11
문제 1	11
문제 2	15
2024학년도 인문사회 I (KU논술우수자)	19
문제 1	19
문제 2	23

2026학년도 인문 (KU논술우수자)

문제 1

※ [문제 1]: [가]를 바탕으로 [나]를 분석하시오. (401~600자) [40점]

[가]

레비나스는 1906년에 리투아니아의 유대인 사회에서 태어난 프랑스 철학자이다. 그는 유대주의, 러시아 문학, 프랑스 문화, 독일 철학의 영향을 받았으며 제2차 세계 대전으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가족을 모두 잃게 되는 경험을 하였다. 레비나스는 타자를 나의 영향권 아래 종속시키기 위하여 전체주의 이념을 강요하는 것을 비판하며 타자에 대한 윤리적 책임을 강조했다. 또 “마음의 선물이 아니라 자기 입에서 나온 빵, 자기 빵 한 입을 주는 것, 지갑을 여는 것을 넘어서 대문을 여는 것”이라며 ‘타자 지향성’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현대 사회에는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회적 소수자들이 존재한다. 하지만 사회적 소수자의 차별 문제는 자유와 평등이라는 권리 문제를 넘어 인간에 대한 이해에 바탕을 둔 인간적 삶에 대한 것이자 바람직한 사회상에 관한 것으로, 평화롭게 공존해야 한다는 당위적 해결책보다는 인간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철학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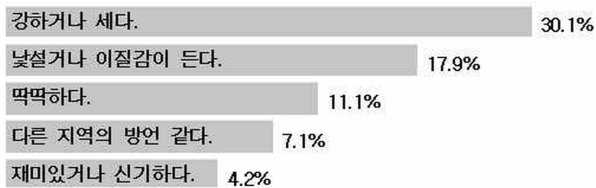
레비나스의 타자 지향성은 자기 자신에게 전념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고 환대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자기 자신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인간에서 다른 사람에 대한 책임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인간으로의 변화를 통해 사회적 소수자 차별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철학적 근거를 제공한다. 타자에 대해 책임지고 타자를 환대하는 윤리적 주체를 끌어 내는 레비나스의 타자 지향성은 사회적 소수자들과의 갈등을 해결하고 공존과 소통을 이루어 낼 수 있는 바탕이다.

- 고등학교 『사회·문화』

[나]

국립국어원의 <남북 언어 의식 조사>에 따르면 북한 이탈 주민 10명 중 7명은 북한 말씨 때문에 구직 활동을 할 때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고 한다.

1. 북한 말씨에 대한 남한 사람들의 연상 이미지는?



2. 북한 이탈 주민의 남한 말씨에 대한 느낌 (4점 척도, 단위: 점)



자료: 국립국어원, <2016년 남북 언어 의식 조사>

- 고등학교 『언어와 매체』

■ 예시 답안

[가]에서 레비나스는 윤리적 주체인 우리에게 타자에 대한 책임과 환대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이는 상대를 있는 모습 그대로 이해하고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일 때 실질적으로 구현된다. 이에 비추어 볼 때, 남한 사람들과 북한 이탈 주민의 상호 언어 사용에 대한 인식을 다룬 자료 [나]는 양쪽 모두 상대를 타자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즉, 남한 사람들은 북한 말에 대해 강하고 낯설며 이질감이 든다고 생각하고, 북한 이탈 주민은 남한 사람들이 빈말이나 가식적인 말, 외래어와 비속어를 많이 쓴다고 인식한다. 다만, 긍정적 혹은 객관적 응답(3.2/4)과 부정적 응답(2.7/4) 간 차이가 크지 않은 북한 사람들의 인식에 비해, 응답자의 60%에 달하는 남한 사람들이 사회적 소수자인 북한 이탈 주민의 언어에 대해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인식을 더 많이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북한 이탈 주민은 그들의 말씨로 인해 구직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등 차별을 경험하고 있다. 이를 고려해 볼 때,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편견을 내려놓고 이들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존중하는 타자 지향성이 필요하다. [564자]

■ 채점 기준

[문제 1]은 레비나스의 타자 지향성 개념을 설명하는 [가]의 요지를 잘 이해하고 활용하여 [나]의 ‘1. 북한 말에 대한 남한 사람들의 인식’과 ‘2. 북한 이탈 주민의 남한 말에 대한 인식’에 관한 자료를 분석하는 것을 요구한다.

평가 영역	평가 항목 내용	배점
[가]의 핵심 내용 이해와 [나]에 대한 적용	① [가]의 핵심 요지와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정확하게 파악하였는가? [가]는 레비나스의 타자 지향성 개념을 다루고 있다. 이는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고 환대하는 윤리적 책임을 의미한다. 자기 자신에게 전념하기보다 다른 사람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인다는 점에서 타자 지향성은 윤리적 주체인 우리에게 필요한 태도라고 할 수 있다. 도표 분석에 활용하기 위하여 지문에 서술된 타자 지향성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요구된다.	40점
	② [나]의 분석을 위해 [가]의 타자 지향성 개념을 남한과 북한 사람 모두에 적용하고 있는가? [가]의 타자 지향성 개념은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게만 요구되는 윤리적 책임을 의미하지 않는다. 따라서 남한 사람들과 북한 이탈 주민의 상대방 언어 사용에 대한 인식을 다룬 [나]의 내용을 분석하고자 할 때 양쪽 모두가 상대를 타자로 인식하고 있음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북한 말에 대한 남한 사람들의 인식과 북한 이탈 주민의 남한 말에 대한 느낌을 보여주는 [나]의 두 도표로부터 이러한 지점을 찾아내는 것이 필요하다.	
[나] 도표의 내용 이해, 그리고 [가]와 [나]의 유기적 연결성	③ [나]에 제시된 두 도표 각각의 정보를 정확히 분석하고 있는가? 1번 도표는 북한 말에 대해 남한 사람들의 인식을 조사한 결과를 보여준다. ‘강하거나 세다’, ‘낯설거나 이질감이 든다’, ‘딱딱하다’ 등, 응답자의 약 60%에 달하는 사람들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음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2번 도표는 남한 말에 대한 북한 이탈 주민의 인식을 다루고 있다. ‘외래어, 외국어를 많이 쓴다’, ‘빈말, 가식적인 말을 많이 쓴다’, ‘비속어를 많이 쓴다’ 등의 응답도 마찬가지로 4점 척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2.7에서 3.2점에 해당하는, 대체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음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④ [나]의 두 도표 간 차이를 확인하여 이를 분석에 활용하고 있는가? [나]에 진술된 바와 같이, 북한 이탈 주민의 10명 중 7명은 말씨로 인해 어려움과 차별을 경험한다는 사실은 이들이 사회적 소수자임을 뒷받침한다. 따라서 [가]의 타자 지향성 개념을 적용함에 있어 북한 이탈 주민을 사회적 소수자로 보고 내용을 진술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아가, 두 도표 각각에 대한 분석이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이를 비교하는 과정을 통해 객관적 혹은 긍정적인 인식과 부정적 인식 사이의 차이가 2번 도표에서보다 1번 도표에서 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포착할 수 있어야 한다. 즉, 상대적으로 남한 사람들이 북한 말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더 많이 가지고 있음을 다루는 것이 좋은 답안의 요건이 된다.	
정합적인 논지 전개 능력과 설득력 있는 표현 능력	⑤ 지문 요지와 핵심 개념을 도표 내용 분석에 활용하면서 일관성 있고 설득력 있게 논지를 전개하고 있는가? 적절한 어휘 선택과 정확한 문장 구성, 논리적인 문장 연결 등 언어적 표현력과 글쓰기 능력을 훌륭히 발휘하고 있는가?	

<채점 기준표>

평가		평가 내용
A+	100	①, ②, ③, ④, ⑤ 모두 훌륭히 충족
A	90	①에서 ⑤까지 모두 무난히 기술하였으나 한 사항이 다소 미흡함
B+	80	①에서 ⑤까지 사항 중 네 가지 사항 충족
B	70	①에서 ⑤까지 사항 중 세 가지 사항 충족
C	50	①에서 ⑤까지 사항 중 두 가지 사항 충족
D	20	①에서 ⑤까지 사항 중 한 가지 사항 충족
F	0	출제 의도와 전혀 무관한 답안 등은 최하

문제 2

※ 제시문 [가]는 앞 문항(문제 1)을 참고하시오.

※ [문제 2]: [가]의 ‘타자 지향성’과 [다]의 ‘여닫개’ 개념을 활용하여 [라]의 인물 간 관계 양상을 논하시오. (801~1,000자) [60점]

[다]

평상시 신경 세포는 음전하를 띠고 있다. 만일 나트륨 이온, 칼슘 이온 등의 양이온이 들어오면 신경 세포는 양전하를 띠게 되어 흥분하게 된다. 반대로 염소 이온과 같은 음이온이 세포 내로 들어오면 세포의 음전하가 커지게 되어 신경 세포의 흥분이 억제된다. 신경 세포를 흥분시키는 신경 전달 물질로는 글루탐산, 신경 세포의 흥분을 억제하는 신경 전달 물질로는 감마 아미노뷰티르산이 대표적이다. 단순히 보면 신경 전달 물질은 신경에 전기를 흐르게 하는 여닫개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신경 전달 물질만 가지고는 온전한 여닫개 역할을 하지 못한다. 신경 전달 물질이 적절히 방출된다고 하더라도 이와 결합하는 수용체가 적절한 기능을 하지 못하면 신경 정보는 효율적으로 전달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신경 전달 물질과 수용체가 합쳐져야 온전한 여닫개의 역할을 할 수 있다. 물론 여닫개의 비유는 이해를 돕기 위함이고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복잡하다. 신경 전달 물질의 종류도 많고, 그 각각에 맞는 수용체도 다르기 때문이다. 또한 재미있는 점은 방출되는 신경 전달 물질의 양이 어떤 이유로 줄어들면 수용체의 수는 증가하고, 반대로 방출되는 신경 전달 물질의 양이 너무 많아지면 수용체의 수는 줄어든다는 것이다. 쉽게 비유하자면 여닫개에 자동 수리 기능까지 있는 셈이다. 그래서 우리 뇌는 기능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항상성*을 지니게 된다. 이러한 항상성이 깨지면 여러 가지 신경 정신 질환이 발생한다.



▲ 소포체에서 연접 틈으로 방출된 신경 전달 물질이 다음 신경 세포막의 수용체와 결합함으로써 이온 통로가 열리고, 신경 정보가 전달된다.

* 항상성: 생체가 여러 가지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생명 현상이 제대로 일어날 수 있도록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는 성질. 또는 그런 현상.

- 고등학교 『독서』

[라]

※ 앞부분의 줄거리: 나는 새로 이사 온 집 마당에 있는 흰 철쭉의 자태에 감동한다. 그리고 이사 온 지 삼 년째 되던 해 봄에 나물 장수 아주머니가 흰 철쭉을 망연히 바라보고 있음을 알게 된다. 나는 그 아주머니가 집터의 옛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집으로 모셔 사연을 들어 보기로 한다.

“아주머니는 아마 전부터 이 동네에 길이 많이 익은 모양이지요?”

나물거리를 대강 사 챙겨 주고 나서 우리는 여자의 눈치를 살펴 가며 조심스럽게 그녀의 사연을 캐묻기 시작했다. 하고 보니 일은 과연 우리의 추측대로였다.

“이 동네 길만 익을라구요. 한 삼사 년 전까지만 해도 여기 이 자리엔 다른 집이 있었다요.”

아주머니는 금세 눈치를 알아채고 한숨 끝에 천천히 사연을 털어놓았다. 아주머니는 원래 일정 말기에 황해도 안악 마을의 한 농촌 마을에서 갓 스물세 이곳으로 출가를 해 왔는데, 예의 흰 철쭉은 그녀가 시집을 오기 전에는 친정집 남새밭 가에 서 있었던 것이었다. 그것을 어느 봄 친정어머니가 모처럼 딸네 집 먼 나들이를 오면서 고향 부모 정물로 파다 심어 주고 간 것이라 하였다. 그런데 친정어머니가 그것을 심고 간 그해 여름 바로 8·15 해방을 맞게 됐고, 이어 서로 간에 소식이나 오갈 길이 끊기고 말았다는 것이었다. 다행히 그 철쭉이라도 해마다 흰 꽃을 피워 주어 아주머니는 그것으로 이 30여 년을 고향 식구들 대하듯 마음을 달래왔노라고 하였다. 한데 어느 해부터인지 인근 땅값이 느닷없이 두 곱 세 곱으로 치솟는 바람에, 아주머니네를 포함한 온 동네가 마치 횡재라도 만난 듯 다투어 집과 땅을 팔고 너나없이 사방으로 흩어져 떠나갔다는 것이었다.

“그 몸쓸 땅값 바람에 멋모르고 모두 눈이 뒤집힌 게라요. 땅값에 눈이 아주 뒤집히지 않고서야 어찌 그리 쉽게 제 살던 집을 다 팔고 떠날 수 있었겠소.”

아주머니는 뒤늦게 집을 팔고 떠난 것이 후회스러운 듯 아쉬운 한숨까지 지었다. 그래 아내가, 집을 팔더라도 그 철쭉이나 따로 파 옮겨다 심지 그랬느냐고, 짐짓 한 마디 어긋나게 묻고 들자, 아주머니는 다시 북쪽 말 억양이 역력한 소리로,

“글쎄, 그때 그런 경황도 없었다우. 그때 어찌 그리 쫓기듯이 거래를 서둘러들 대던지 나무커녕 사람마저 깃들 곳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한 채 터부터 비켜 나가 줘야 했을 형편이었으니까유.”

변명이라도 하듯 한숨 섞어 말하고는 새삼 꽃 쪽으로 눈길을 보냈다.

흰 철쭉이 거기 남아 있게 된 것은 어쨌거나 그런저런 사연으로 해서였다. 그런데 이듬해 봄이 되어서였다. 아주머니네는 그때 이미 집값으로 받은 돈을 이 일 저 일로 거의 다 축내 버리고, 종내는 아들 내외와 성남 번두리에 셋방 한 칸을 얻어 살면서 인근 산간으로 나물 뜯이를 나다니고 있었는데, 하룻밤은 느닷없이 피곤한 잠결에 옛날 살던 집 철쭉꽃 꿈을 꾸게 되었다는 것이었다.

“꿈에서도 그토록 꽃빛이 희고 탐스러울 수가 없었어요. 집터도 물론 내가 살아오던 옛날 집이었구…… 꿈을 깨고 나니 꽃이 필 철이더구만유. 그래 아무래도 무심할 수가 없어 나물 장살 핑계 삼아 꽃을 보러 왔었지유. 찾아와 보니 아닌 게 아니라 담 너머로 꽃이 나를 기다리고 있더구만유.”

(중략)

아주머니가 꿈속에서 본 것은 다만 흰 철쭉꽃만이 아니었다. 흰 철쭉꽃은 그녀의 고향의 모습이자 친정어머니의 모습이기도 하였다. 아주머니는 철쭉으로 고향을 만나고 그 어머니를 대신 만나 온 것이었다. 그리고 거기서 그리운 고향과 어머니의 소식을 기다려 온 것이었다. 친정어머니가 행여 이남으로 넘어와 어디에 살아 있다면 그 어머니는 철쭉을 기억하고 있을 것이었다. 아니라면 다른 친척이나 고향 사람이라도 당부를 가지고 넘어와 있을 수 있었다. 아직은 아무도 찾아온 사람이 없었지만, 집을 옮겨 간 뒤에라도 누가 행여 철쭉의 기억을 찾아 나타날지 몰랐다. 철쭉은 다른 데로 옮겨 갈 수가 없었다. 그때의 사정이 정말이었거나 말거나, 아주머니의 기다림이 지쳐 망단*을 했거나 말거나, 나무를 옮겨 가지 못할 진짜 사연은 그 때문이었다. 아주머니가 봄마다 꽃 꿈을 꾸고 그것을 보러 오고, 그 꽃으로 마음을 놓고 돌아가는 것은 그녀가 아직도 고향과 친정어머니를 잊지 못하고 거기서 친정의 무고*를 믿고 싶은 애절한 기원과 기다림 때문이었다. 그것을 분명히 의식했든 안 했든 그녀는 그 때문에 나무를 옮겨 갈 수가 없었을 것이었다. 나무는 언제까지나 거기 남아 있어야 하였다. 거기서 끝끝내 기다리고 있어야 하였다.

아내나 나는 이미 그것을 알고 있었다. 나무를 옮겨 가도 좋다는 아내의 제안은 그러니까 그저 자기 진심에 겨운 위로의 말일 뿐이었다.

하지만 아내나 나보다도 나무를 옮겨 갈 수 없음을 더 잘 알고 있는 것은 바로 아주머니 자신이었다. 그녀는 물론 아내의 선심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새댁의 마음썬 고맙기 그지없지만, 그건 나무한테 공연한 짓일 게우. 이젠 벌써 30여 년을 저 자리에서 꽃을 피워 왔고, 댁네들도 계속 좋은 꽃을 피우게 보살펴 왔는데, 새삼스레 자리는 옮겨 가 뭐하겠수.”

아주머니는 완강하게 아내의 제의를 사양했다. 그 대신 그녀는 1년에 한 번씩 우리 집을 찾아 나무가 계속 꽃을 잘 피워 주고 있는 것만 보고 가면 더 바랄 것이 없다고 하였다.

아내나 나는 물론 그 아주머니를 굳이 더 권할 필요가 없었다. 그리고 그 조그맣고 애뜻한 아주머니의 소망을 거절할 이유는 더더욱 없었다. 1년에 한 번씩 봄철에 찾아와서 꽃이 잘 피고 있는 것을 보고 가게 해 달라는 것은 물론 우리에게 그만큼 나무를 잘 보살피 달라는 당부의 뜻이 포함된 말이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그녀의 당부가 아니더라도 스스로 똑같은 마음의 다짐이 서로 간에 오가고 있었던 것이다.

다음 해에도 5월로 접어들자 철쭉은 어김없이 흰 꽃을 만발했고, 아주머니도 때맞춰 나물 광주리를 이고 동네를 찾아왔다. 이번에는 물론 집 앞 길거리에 전을 펴고 앉아서 나물을 팔아야 할 필요가 없었다. 아주머니는 바로 우리 집으로 들어와서 나물 광주리를 몽땅 비워 내놓았다.

“도회지 사람들한테 열 푼어치도 안 되어 반가울 게 없겠지만……. 산에서 손수 뜯어 온 것이니 남는 건 이웃 간에 인심이나 나누라구요.”

선물인 양 공짜로 나물거리를 비워 주고는 한나절 망연스레* 꽃을 보고 앉았다가 안심스러운 얼굴로 집으로 돌아갔다. 몇 푼 안 되는 나물값이나 점심 요기마저 한사코 거절을 한 채였다. 기다림이 이미 끝난 때문이었을까. 그새 별다른 소식이 없었던 일에 대해서도 전혀 실망을 하는 빛이 없이 오직 그 화사한 흰 철쭉꽃으로 그간의 시름이 덜어진 얼굴로.

이듬해에도 또 그 이듬해에도 마찬가지였다. 아주머니는 그렇게 오륙 년 동안 빠짐없이 봄마다 옛 동네로 꽃을 보러 찾아왔다. 그리고 우리 집에 깨끗한 산나물을 꽃 값으로 선물하고 꽃을 보고 안심스레 오던 길을 돌아갔다. 그것은 우리들에게 하나의 연례행사이자 숙젓거리가 되어 버리고 있었다. 아주머니의 당부도 당부였지만, 우리는 갈수록 철쭉의 생육 상태에 마음이 쓰이고 있었다. 나무에 어떤 병충해라도 끼지 않을까, 거름이 부족하거나 넘치지는 않을까, 겨울철 추위에 동해를 입지나 않을까…… 봄이 되면 꽃이 제대로 피어 줄지 어떨지 지레 조바심이 쳐지기까지 하였다. 그러다 예년처럼 제대로 꽃이 피고 아주머니가 찾아왔다 안심을 하고 돌아가고 나면, 우리는 한 해의 숙제를 무사히 끝낸 것처럼 마음이 한참 홀가분해지곤 하였다.

* 망단(望斷): 어떤 바라던 일이 실패함.

* 무고(無故): 사고 없이 평안함.

* 망연스레: 아무 생각 없이 멍한 데가 있게.

- 고등학교 『국어』

■ 예시 답안

[가]의 ‘타자 지향성’은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와 관련되는 개념이며, [다]의 ‘여닫개’는 개체와 개체 간의 만남과 연결 체계를 비유적으로 설명하는 개념이다. 레비나스의 타자 지향성은 윤리적 주체로서 타자에 대한 환대와 책임을 강조하며, ‘여닫개’에 있어서는 상호작용적 접속 과정과 개체 간 연결의 항상성이 중시된다.

[라]는 ‘나’ 부부가 이산가족 아주머니와 흰 철쭉을 매개로 소통과 연결을 이뤄내는 과정을 보여준다. 그 출발은 자기 집에 피어난 흰 철쭉을 유심하게 바라보는 낯선 아주머니에 대한 부부의 관심과 말 걸기였다. 그를 통해 흰 철쭉에 얹힌 특별한 사연을 전해 들으면서 부부는 사연의 주인공인 아주머니의 애절한 심정을 수용하게 되며, 이는 타자에 대한 윤리적 연결을 통한 관계 확장으로 이어진다. [다]와 관련해서 보자면, 독립 개체로서 부부의 관심과 동정심이 일종의 수용체가 되어 또 다른 개체인 아주머니가 방출한 그리움의 언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을 적극 수용함으로써 접속과 연결이 이루어진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여닫개’의 상호작용적 소통 기능이 온전히 작동한 상황이다. ‘연접 틈’에 흰 철쭉이라는 미적 매개물이 있었고, 산나물이 보조적 연결고리 구실을 한 점도 특기할 만하다.

주목할 것은 ‘나’ 부부의 적극적인 타자 지향적 태도다. 양자 간 연결이 가능했던 출발점은 부부가 아주머니의 모습을 무심히 넘기지 않고 지갑을 열어서 나물을 사고, 대문을 열고 맞이하여 사연을 물어본 행동이었다. 레비나스가 말한바 타자 지향성의 실천적 발현이다. 아주머니가 그 환대에 부응하여 내면을 토로하고 부부가 거기 공감함으로써 내적 연결이 성취된 상황이다. 아주머니는 철쭉꽃을 파가는 대신 1년에 한 번만 꽃을 보러 오고 부부는 꽃을 잘 돌본다고 하는 협력적인 조화를 통해 그들의 관계는 안정적 지속의 항상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이 사례를 통해 인간관계가 점점 형식화돼 가는 현대사회에서 타인과의 아름다운 공생을 어떻게 이어 나가야 할지를 유의미하게 성찰할 수 있다.

■ 채점 기준

[문제 2]는 [가]와 [다]의 주요 개념을 활용하여 [라]의 인물 간 관계 양상을 논하도록 한 것이다. [문제 2] 답안은 다음과 같은 기준의 충족 여부를 토대로 평가한다.

평가 영역	평가 항목 내용	배점
문제에 적시된 핵심 키워드를 중심으로 한 [가], [다] 지문의 정확한 이해	① [가] ‘타자 지향성’의 개념과 속성, 맥락을 바르게 파악하였는가? [가]의 ‘타자 지향성’이 타자에 대한 소극적 배려나 마음 쓰기를 넘어서 환대와 책임의 윤리적 실천을 중시하는 적극적인 개념으로서, 인간 자체에 대한 근본적 철학이라는 점을 이해하고, 이를 글에 적절하게 반영하였는가?	60점
	② [다] ‘여닫개’의 개념과 성격, 의미 맥락을 정확히 파악하였는가? [다]의 ‘여닫개’가 단순한 도구나 물리적 장치가 아닌 ‘개체와 개체 사이의 만남과 접속, 소통과 연결의 체계’를 뜻하는 비유적 개념으로, 개체 사이의 내적 상호작용과 조화가 중요하다는 점을 이해하고, 이를 글에 적절하게 반영하였는가?	
[가], [다]의 내용과 [라]의 인물 간 관계 양상의 적절한 연결을 통한 깊이 있고 정합적인 논지 구성	③ [가]-[라] 지문의 바른 연계를 통한 논지 구성이 잘 이루어졌는가? [가]에서 말하는바 관계적 윤리의 적극적 실천으로서의 타자 지향성이 [라]에서 ‘나’ 부부가 아주머니를 환대하고 그 말에 귀 기울여 공감하며 해마다 철쭉꽃을 볼 수 있도록 배려하고 정성껏 철쭉을 가꾸는 행위를 통해 발현되고 있음을 적절히 연계하여 논지를 구성했는가?	
	④ [다]-[라] 지문의 바른 연계를 통한 논지 구성이 잘 이루어졌는가? [다]에서 ‘여닫개’ 개념으로 설명한바 개체(신경세포)와 개체 사이의 접속과 연결이 신경 전달 물질과 수용체의 상호작용적 관계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하는 내용이 [라]에서 아주머니가 부부의 배려에 적극 응답해서 철쭉에 얹힌 애절한 그리움의 언어를 발화하고 이를 부부가 공감의 마음과 동정의 태도로 수용함으로써 상호 간 내적 연결을 성취하는 형태로 구현되고 있음을 적절히 연계하여 논지를 구성하였는가? ※ 추가점 요소 : [다]에서 정상적인 여닫개의 특징적 현상으로 설명한 ‘항상성’이 [라]에서 인물 간 관계의 균형적 조화를 통한 안정적 지속의 형태로 구현되고 있음을 짚어내서 답안에 잘 반영한 경우 추가 점수 부여.	
정합적인 논지 전개 능력과 설득력 있는 표현 능력	⑤ 위의 여러 내용을 적절히 배치하고 정합적으로 연결하여 논지를 매끄럽게 전개함으로써 글 전체가 논술문다운 안정성과 설득력을 확보하고 있는가? 아울러, 적절한 어휘 선택	

평가 영역	평가 항목 내용	배점
	과 정확한 문장 구성, 자연스러운 문장 연결 등 언어적 표현력과 글쓰기 능력을 훌륭히 발휘하고 있는가?	

<채점 기준표>

평가		평가 내용
A+	100	①에서 ⑤까지 다섯 가지 사항 모두 충족
A	90	①에서 ⑤까지 모두 무난히 기술하였으나 한 사항이 다소 미흡함
B+	80	①에서 ⑤까지 다섯 가지 중 네 가지 사항 충족
B	70	①에서 ⑤까지 다섯 가지 중 세 가지 사항 충족
C	50	①에서 ⑤까지 다섯 가지 중 두 가지 사항 충족
D	20	①에서 ⑤까지 다섯 가지 중 한 가지 사항 충족
F	0	출제 의도와 전혀 무관한 답안 등은 최하

2025학년도 인문사회 I (KU논술우수자)

문제 1

※ [문제 1]: [가]와 [나]의 관점을 바탕으로 [다]의 자료를 분석하시오. (401-600자) [40점]

[가]

‘리비히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다. 식물이 성장하는 데 필요한 필수 영양소 가운데 성장을 좌우하는 것은 넘치는 요소가 아니라 가장 부족한 요소라는 이론이다. 독일의 화학자 유스투스 리비히가 1840년에 주장했고, 다른 말로 ‘최소량의 법칙’이라 부른다. 식물이 잘 자라려면 성장에 필요한 질소, 인산, 칼륨, 석회 등 여러 요소가 있는데, 이 가운데 어느 하나가 부족하게 되면 다른 것들이 아무리 많아도 소용없다는 이야기다. 즉, 많은 것이 아니라 부족한 것이 성장을 결정한다는 것이다.

어디 식물에만 해당하는 법칙이겠는가? 동물의 성장, 인간의 성장과 발달도 다르지 않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사회나 국가의 역량도 최소량의 법칙에서 벗어날 수 없다. 생태계의 삶과 지속 가능성에도 리비히의 법칙은 그대로 적용된다. 우리가 살아가는 생태계의 지속 가능성은 최하위 존재에 달려 있다. 도시도 생태계다. 도시가 건강하게 지속 가능하려면 상위 포식자들만 먹고살아서는 안 된다. 도시 생태계의 바탕을 이루는 하위 존재들도 먹고살아야 한다.

도시도 마찬가지다. 도시에 비싼 집, 새 집, 큰 집만 있다면 살아가기 힘들 것이다. 싼 집, 헌 집, 그리고 작은 집이 함께 있어야 이제 막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젊은이들도 들어가 살 집이 있고, 젊은 사업가들이 창업을 위한 공간도 마련할 수 있다.

- 고등학교 『독서』

[나]

세계는 우리를 지켜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땅다람쥐나 딱따구리, 고슴도치에 대해 생각 없이 마구 내뱉는 말을 그들이 듣지 못하고 지나칠 리 없습니다. 인간을 제외한 다른 생물들은 죽임을 당하고 먹히는 것은 상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부탁한다고, 고맙다고 말하기를 기대하며 자신들이 쓸모없이 낭비되는 것은 싫어합니다. 쓸데없이 생명을 죽이는 것을 금하는 계율은 불가피하게 여러 계명 가운데 첫 번째이고, 또 매우 어려운 계명입니다. 고마워하는 마음으로 조용하게 ‘죽이고 먹는 것’을 실천하는 것에 으뜸가는 사람들은 우리의 스승입니다. 20세기의 축산 산업에서 발견되는 동물에 대한 태도와 동물을 취급하는 방식은 문자 그대로 역겹고 비윤리적이며, 이 사회에 끝없는 악운을 공급하는 원천입니다.

윤리적 삶이란 진지하게 마음을 쓰고, 예절을 지키며, 기품을 갖춘 삶입니다. 온갖 도덕적 결함을 가진 성격 가운데 가장 나쁜 것은 생각이 인색한 것으로, 이것은 모든 형태의 비열함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타자와 자연에 대해 무례하게 사고하거나 행동하는 것은 우리가 육체적·정신적으로 생존하는 데 필수적인 축제성과 종(種) 사이에 이루어져야 할 의사소통의 기회를 감소시킵니다. 인디언의 삶을 연구하는 리처드 넬슨은, 아타파스카족의 어머니는 어린 딸에게 “산을 손가락으로 가리키지 말아라. 그건 무례한 일이란다.”라고 말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사냥 등으로 거두어들인 어떤 생명체의 육신이든지 간에 한 부분도 낭비하거나 부주의하게 다루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이 성취했다고 뽐내거나, 지나치게 자랑스러워해서도 안 됩니다. 자신의 숨씨를 당연한 것으로 여겨서도 안 되지요.

야생 세계의 예절이 요구하는 것은 너그름만이 아니라 불편함을 명랑하게 감내하는 기분 좋은 강인함과, 모든 사람이 약하다는 것에 대한 이해와, 그리고 어떤 겸손입니다.

- 고등학교 『독서』

[다]
(1)



미치료율과 그 이유로서 경제적 이유(2011년)

구분	소득 수준			
	하	중하	중상	상
미치료율(%)	21.2	20.4	17.2	15.5
경제적 이유(%)	29.9	18.2	10.5	6.2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3)

- 고등학교 『통합사회』

(2)

주거 상황의 변화



(통계청, 2017)

- 고등학교 『한국사』

■ 예시 답안

[가]는 하위 존재의 처지가 개선돼야 사회의 지속적 발전이 가능하다고 하며, [나]는 동물을 비롯한 약자에 대한 예의와 존중이 윤리적 삶의 필수 요소라고 말한다. 무관심 속에 소외되거나 죽어가는 타자, 특히 하위 존재에 대한 진지한 관심과 배려가 중요하다는 관점이다. [다]의 자료들은 우리 사회의 약자 내지 하위 계층이 처한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1)에서 소득이 낮은 층에서 암 환자의 생존율이 현저히 낮고, 경제적 이유에 따른 미치료율이 거의 30%에 달하여 상층 집단의 4배 이상에 해당한다는 것은 양극화 상황에서 하위 집단이 삶의 기초 요건인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음을 말해 준다. (2)에서 주거의 양극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노숙 생활을 하거나 켜미방에서 생활하는 등 기초 수준의 주거 요건조차 갖추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도 심각한 문제다. 하위 존재들이 겪는 이런 어려움은 인간 기본권의 문제인 동시에, 사회의 지속적 발전을 저해하는 ‘취약한 최소량’에 해당한다. 이는 개인 차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로서, 사람들의 폭넓은 관심과 함께 사회적 · 국가적 차원의 배려와 조치가 필요하다. (573자)

■ 채점 기준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평가 영역	평가 항목 내용	
문제 1	[가], [나]의 핵심 내용에 대한 바른 이해와 연계	① [가]의 핵심 요지와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정확하게 파악하였는가? [가]에 제시된 ‘리비히의 법칙’ 또는 ‘최소량의 법칙’에 대해 그 기본 개념과 함께 확장된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식물의 성장 외에 한 사회의 유지와 발전을 위해서도 하위 존재가 건강한 생존을 영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관건이다. ② [나]의 핵심 요지와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정확하게 파악하였는가? 지문 [나]는 사회의 유지와 발전에 초점을 맞춘 [가]와 달리 대상에 대한 관심과 예의라는 윤리적 태도에 주안점을 둔 글이다. 타자와의 공생에 있어 겸손과 존중이 필요하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여기서, 지문에 표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지만, 그 존중의 대상이 ‘약자’ 내지 ‘하위존재’를 향하고 있음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죽어가는 동물’은 인간에 대해 약자인 것이다. 이 부분을 제대로 이해할 때 [가]와의 연관 속에서 [다] 자료에 대한 유효한 분석을 수행할 수 있다.	40점
	[가], [나]의 관점과 [다] 자료 분석의 논리적 연계	③ [가]와 [나]의 관점과 [다] 자료 분석의 논리적 연계가 잘 이루어져 있는가? 지문 [가]와 [나]는 사회적 약자 내지 하위 존재가 처한 상황을 주목하며, 그들에 대한 배려와 존중의 중요성을 제기한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이런 관점을 바탕으로 할 때 [다] 자료 분석은 도표의 여러 정보 가운데 상하층의 양극화 상황과 특히 하위 존재가 겪는 어려움을 반영한 요소에 초점을 맞춘 연계 분석이 요청된다. [다] 자료는 하위 계층의 기본적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는 현실을 보여주는바, 이를 [가]에서 말하는 ‘최소량의 법칙’과 연결시켜야 하며, [나]와 연관하여 하위 존재에 대한 예의와 배려의 필요성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다] 자료의 주요 정보에 대한 바른 분석과 활용	④ [다]의 자료 분석에서 핵심 정보를 잘 선별해서, 논의의 근거로 활용하고 있는가? [다]의 (1), (2)에는 여러 정보가 담겨 있다. (1)의 경우 암 환자 생존율의 소득 수준별 차이와 남녀 간 차이가 담겨 있으며, 질병 미치료율의 차이와 이유를 하층과 중하, 중상, 상층으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다. (2)는 주거 양극화가 심화되는 상황을 보여주는데, 상위 집단에 대한 정보와 하위 집단에 대한 정보가 나란히 제시돼 있다. 이런 여러 정보 가운데 하위 존재에 초점을 맞춘 선별 분석이 필요하다. (1)의 암환자 생존율과 미치료율 도표에서는 소득 수준이 낮은 사람들의 생존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고 있음을 읽어내야 한다. 하층 집단이 경제적 이유로 치료를 못 받은 비율이 상층 집단의 4.5배 이상이라는 것은 중요 정보가 된다. (2)에서 주목할 것은 안정된 주거 없이 상가나 고시원, 찜질방에서 거주하거나 노숙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으며 더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핵심 정보에 해당한다. 이러한 하위집단이 ‘취약한 최소량’으로서 사회의 건강하고 지속적인 발전에 저해 요소가 된다는 점을 분석해낼 수 있어야 한다.	
	정합적인 논지 전개 능력과 설득력 있는 표현 능력	⑤ 지문 요지와 핵심 개념을 도표 자료 분석에 활용하면서 일관성 있고 설득력 있게 논지를 전개하고 있는가? 적절한 어휘 선택과 정확한 문장 구성, 논리적인 문장 연결 등 언어적 표현력과 글쓰기 능력을 훌륭히 발휘하고 있는가?	

<채점 기준표>

평가		평가 내용
A+	100	①, ②, ③, ④, ⑤ 모두 훌륭히 충족
A	95	①에서 ⑤까지 모두 무난히 기술하였으나 한 사항이 다소 미흡함
B+	85	①에서 ⑤까지 사항 중 네 가지 사항 충족
B	75	①에서 ⑤까지 사항 중 세 가지 사항 충족
C	40	①에서 ⑤까지 사항 중 두 가지 사항 충족
D	20	①에서 ⑤까지 사항 중 한 가지 사항 충족
F	0	출제 의도와 전혀 무관한 답안 등은 최하

문제 2

※ 제시문 [가], [나]는 앞 문항(문제 1)을 참고하십시오.

※ [문제 2]: [가]와 [나]를 참고하여 [라]에 나타난 인물들의 관계 양상을 논하십시오. (801-1,000자) [60점]

[라]

※ 앞부분 줄거리 : 도시에서 사는 아내와 남편은 점점 서로 소통하지 못한다. 바닷가 빈촌에서 성장한 아내는 도시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도시에서 성장한 남편은 그런 아내를 이해하지 못하게 된다. 결국, 자유를 꿈꾸던 아내는 마침내 침묵한다. 그러던 중 아내에게 연두색 피멍이 생기고, 그것은 점점 커져 그녀의 온몸에 퍼진다. 음식도 먹지 않고 베란다에서 햇볕을 쬐는 것만 좋아하던 아내는 점점 나무로 변해 간다. 출장에서 돌아온 남편은 그런 아내의 모습에 처음엔 놀라지만 그녀를 정성껏 돌본다. 말하는 것이 어려워진 아내는 어머니를 향해 마음속으로 편지를 쓴다.

어머니.

이제 어머니께 편지를 쓸 수 없게 되었어요. 어머니가 두고 가신 스웨터를 입어 볼 수도 없게 되었어요. 지난겨울 여기 올라오셨다가 깜빡 잊고 두고 가신 자주색 스웨터 말예요.

그이가 출장 간 다음 날, 아침부터 오한이 들길래 그 옷을 입어 보았어요. 제때 빨아 두지 않았던 덕분에 묵은 반찬 냄새며 어머니 살냄새가 그대로 배어 있었어요. 다른 날 같으면 빨아 입었을지도 모르지만 너무 추워서, 또 그 냄새를 오랫동안 맡고 싶어서 그냥 입고 잠들어 버렸어요. 다음 날 새벽까지 오한은 멈추지 않고, 어머니, 얼마나 춥고 목말랐는지, 마침내 아침 햇빛이 안방 유리창에 비칠 때 나는 소리를 죽여 울었답니다. 그 따뜻한 빛을 좀 더 깊숙이 받아들이고 싶어서 베란다로 나가 옷을 벗었어요. 별거벗은 살에 내리박히는 햇빛이 꼭 어머니 살내 같아서,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앉아 어머니만 불렀어요.

얼마의 시간이 지났을까요. 며칠일까, 몇 주일일까, 아니면 몇 달일까요. 제법 대기가 뜨거워지는가 싶더니 어느새 열기가 가시고, 그 뒤로 조금씩 쌀쌀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뿐이에요.

멀리 중랑천 너머 아파트의 창문들은 지금쯤 주황빛으로 밝혀졌겠지요. 거기 사는 사람들은 나를 볼 수 있을까요. 간선 도로에서 전조등을 내쏘며 달려가는 차들은 나를 볼 수 있을까요. 나는 지금 어떻게 생겼을까요.

*

그이는 무척 친절해졌습니다. 커다란 화분을 구해 와서 거기 나를 심어 주었어요. 일요일이면 오전 내내 베란다 문턱에 걸터앉아 진딧물도 잡아 줘요. 내가 수도물을 싫어한다는 것을 기억하고는, 그렇게 피곤해만 하던 사람이 아침마다 물통 가득 뒷산 약수를 길어 와서 내 다리에 부어 준답니다. 얼마 전에는 기름진 새 흙을 한 아름 사 와서 갈아주었어요. 비가 내린 다음 날, 오랜만에 도시의 공기가 깨끗해진 새벽녘이면 창문과 현관문을 활짝 열어 공기를 바꾸어 준답니다. (중략)

*

어렸을 때 생각이 나요. 부엌으로 달려가 어머니 치마에 얼굴을 묻으면 아, 그 맛난 냄새. 참기름 냄새, 볶은 깨 냄새. 내 손에는 언제나 흙이 묻어 있었지요. 흙 묻은 손으로 어머니 치맛자락을 더럽히곤 했어요.

몇 살 때였을까요. 보슬비가 뿌리던 봄날 아버지가 모는 경운기에 실려 바닷가를 따라 달렸던 기억이 나요. 그때 나를 향해 웃어 주시던 우비 차림의 어른들, 젖은 머리카락이 이마에 찰싹 붙어서는 강충강충 뛰며 손 흔들며 대던 아이들의 얼굴이 팔랑개비처럼 맴돌아요.

어머니한테 세상은 그 바닷가 빈촌이지요. 그곳에서 태어나 그곳에서 자라셨지요. 그곳에서 아이를 낳고 그곳에서 일하고 그곳에서 늙어 오셨어요. 언젠가는 그곳의 선산 기슭에 아버지와 나란히 누우실 거예요.

어머니, 어머니처럼 될까 봐 나는 멀리멀리 여기까지 떠나왔어요. 열일곱 살 때였지요. 무작정 집을 나와 달포 넘게 헤매 다녔던 부산, 대구, 강릉의 시가지들을 잊을 수 없어요. 일식당에서 나이를 속여 일을 하고 저녁이면 독서실에서 새우잠*을 자면서도 나는 그곳이 좋았어요. 시가지의 휘황한 불빛, 시가지의 화려한 사람들이 좋았어요.

어머니. 낯선 사람들로 가득한 이 거리를 놓고 망가진 얼굴로 떠돌게 될 줄을 그때는 몰랐어요. 고향에서도 불행했고 고향 아닌 곳에서도 불행했다면 나는 어디로 가야 했을까요.

나는 한 번도 행복했던 적이 없었어요. 어떤 끈질긴 혼령이 내 목을, 팔다리를 옥죄며 따라다녔을까요. 아프면 울고 꼬집히면 소리치는 어린아이처럼, 나는 언제나 달아나고만 싶었어요. 울부짖고 싶었어요. 무엇이 나를 그토록 괴롭혀서, 무엇으로부터 달아나겠다고 나는 지구 반대편까지 가려고 했을까요. 왜 가지 못했을까요, 바보처럼. 왜 훌훌 떠나 이 지긋지긋한 피를 갈지 못했을까요.

*

내 내장 속에서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고 했어요. 먼 바람 소리 같은 것만 췌췌 메아리친다고 했어요. 손가락 끝으로 청진기를 두들기며 그 늙은 의사가 중얼거리는 것을 들었어요. 청진기를 탁자에 올려놓은 의사는 초음파 검사기의 흑백 모니터를 틀었어요. 누워 있는 내 배에 희고 차가운 유액을 바르고는, 막대기처럼 생긴 차가운 기구로 명치*에서 아랫배까지 살갗을 차근차근 문질러 내려갔어요. 그것을 통해서 내장들의 모습이 모니터에 나타나는 모양이었어요.

노말*인데.

쫓, 하고 입맛을 다시며 의사가 중얼거렸지요.

지금 보이는 게 위장인데……. 아무 이상 없어요.

모든 것이 ‘노말’이라고 그분은 말했어요.

위, 간, 자궁, 콩팥 모두 정상인데.

그것들이 모두 서서히 사라지고 있는 것을 그는 왜 보지 못했을까요. 휴지를 몇 장 뽑아 유액을 대충 닦아 주더니, 일어나려고 하는 나에게 다시 누워 보라고 하고는 별반 아프지 않은 배 이곳저곳을 꺾꺾 누르기만 했어요. 아파? 하고 대뜸 반말로 묻는 그의 안경 쓴 얼굴을 쏘아보며 나는 연신 고개를 흔들었어요.

여기도 괜찮고?

여기도 안 아프고?

안 아파요.

주사를 맞고 돌아오는 길에 다시 토악질*을 했어요. 지하철 구내의 차가운 타일 벽에 등을 대고 쪼그려 앉았어요. 통증이 멈추기를 기다리며 숫자를 세었어요. 마음을 편하게 가지라고 그 의사가 말했거든요. 모든 것이 마음 탓이라고 스님 같은 말을 했어요. 마음을 편하게, 마음을 평화롭게, 하나, 둘, 셋, 넷, 토하고 싶을 때는 숫자를 세면서, 한없이 평화롭게……. 기어이 눈물이 숫구칠 때까지 통증은 멈추지 않고, 거푸 위액을 게워 낸 뒤 엉덩이를 깔고 주저앉았어요. 흔들리는 지상이 제발, 멈추어 주기를 기다렸어요.

그것은 얼마나 먼 날의 일이었을까요.

*

어머니, 자꾸만 같은 꿈을 꾸어요. 내 키가 미루나무만큼 드높게 자라나는 꿈어요. 베란다 천장을 뚫고 윗집 베란다가 지나, 십오 층, 십육 층을 지나 옥상 위까지 콘크리트와 철근을 뚫고 막 뻗어 올라가는 거예요. 아아, 그 생장점* 끝에서 흰 애벌레 같은 꽃이 꼬물꼬물 피어나는 거예요. 터질 듯 팽팽한 물관 가득 맑은 물을 퍼 올리며, 온 가지를 힘껏 벌리고 가슴으로 하늘을 밀어 올리는 거예요. 그렇게 이 집을 떠나는 거예요. 어머니, 밤마다 그 꿈을 꾸어요.

*

하루가 다르게 추워지고 있어요. 오늘도 세상의 땅에는 얼마나 많은 잎사귀가 떨어졌는지, 얼마나 많은 풀벌레가 죽어 갔는지, 얼마나 많은 뱀이 허물을 벗었고 어떤 개구리들은 일찌감치 겨울잠에 들었는지요.

자꾸만 어머니 스웨터 생각이 나요. 어머니 살냄새가 잘 기억나지 않아요. 그이더러 그 옷으로 내 몸을 덮어 달라고 말하고 싶지만 말할 길이 없어요. 어쩌면 좋을까요. 그이는 말라 가는 나를 보면서 울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해요. 아시지요, 그이한테 가족은 나뿐이었어요. 그이가 부어 주는 약수에 따뜻한 눈물이 섞이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불끈 쥔 주먹이 겨냥할 곳 없어 허공을 휘저어 대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

어머니, 무서워요. 내 사지를 떨구어야 해요. 이 화분은 너무 좁고 딱딱해요. 뻗어 나간 뿌리 끝이 아파요. 어머니, 겨울이 오기 전에 나는 죽어요. 이제 다시는 이 세상에 피어나지 못 하겠지요.

- 새우잠: 새우처럼 등을 구부리고 자는 잠.
- 명치: 사람의 복장뼈 아래 한가운데의 오목하게 들어간 곳.
- 노말(normal): 보통의, 평범한, 정상적인
- 토약질: 먹은 것을 게워 냄. 또는 그런 일.
- 성장점: 식물의 줄기나 뿌리 끝에 있으며 성장을 현저하게 하고 있는 부분.

- 고등학교 『문학』

■ 예시 답안

[라]에는 빈촌을 떠나 도시로 왔으나 도시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외로움과 무력감 속에 식물화되고 있는 ‘나’가 등장한다. ‘나’는 심리적으로 매우 취약한 상태에 있다는 점에서 [가]의 ‘하위 존재’에 해당하며, [나]에서 말하는 진정한 이해와 존중이 필요한 대상이다. 과연 ‘나’는 주변 인물들로부터 그러한 배려를 받고 있을까?

‘나’가 심리적으로 강하게 연결되어 있는 인물은 어머니다. 과거의 ‘나’는 가난한 생활에 구속된 어머니를 벗어나 멀리 떠났지만 현재는 따뜻한 모성에 대한 지향을 지니고 있다. 어머니 스웨터로 몸을 감싸고 싶다는 데서 이를 볼 수 있다. 하지만 그 소망은 충족되지 못하며, 이는 ‘나’를 더 춥고 외롭게 만든다. 삭막한 아파트 베란다에서 소리 없이 신음할 따름이다.

의사의 태도는 왜 ‘나’가 도시에서 소외되며 식물화되는지를 잘 보여준다. 얼핏 일상적이고 자연스러운 의료행위로 보이지만, 의사가 ‘나’를 대하는 태도는 형식적이며, 무례함이 있다. 대뜸 반말을 하거나 상대가 불편함을 느끼는 데도 몸을 찌르는 일, 마음을 편히 가지라는 틀에 박힌 처방을 내리는 일에서 이를 볼 수 있다. ‘나’가 지하철 구내에서 고통스런 토약질을 하는 것은 이런 엇갈린 관계와 무관하지 않다.

주목할 것은 남편의 태도다. 본래 ‘나’와 갈등 관계에 있던 남편은 아내가 나무로 변해가자 정성껏 그녀를 돌본다. 약수를 부어주고 흙을 갈아주는 남편의 행동은 예절을 지키는 윤리적 태도처럼 보인다. 하지만 아내가 이렇게 되기 전에 더 잘 소통하고 배려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어머니의 온기를 찾고 땅에 뿌리내리고자 하는 아내의 소망을 이해하지 못한 것도 아쉬운 점이다. 화를 내거나 허공에 주먹질하는 모습에서도 심리적 단절감을 보게 된다.

작품 속의 ‘나’는 특수한 사례로 볼 일이 아니다. 심리적으로나 신체적, 경제적으로 취약한 상태에서 신음하는 이들이 우리 주변에 많다. 진정한 이해와 존중으로 이들을 감싸 안을 때 사회는 더 건강하게 발전할 것이다. (987자)

■ 채점 기준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문제 2	[문제 2]는 [가]와 [나]의 시각을 참고하여 [라]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관계 양상과 내재한 의미를 논평하는 문제이다. [문제 2] 답안의 적합성은 다음과 같은 기준의 충족 여부를 토대로 평가할 수 있다.	60
	평가 영역	평가 항목 내용
	[가]와 [나]에 대한 이해	① [가]와 [나]의 요지와 의미하는 바를 바르게 파악하였는가? [가]에 제시된 ‘리비히의 법칙’ 또는 ‘최소량의 법칙’에 대해 그 기본 개념과 함께 확장된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식물의 성장 외에 한 사회의 유지와 발전을 위해서도 하위 존재가 건강한 생존을 영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관건이다. 지문 [나]는 대상에 대한 관심과 예의라는 윤리적 태도에 주안점을 둔 글이다. 타자와의 공생에 있어 겸손과 존중이 필요하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여기서, 지문에 표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지만, 그 존중의 대상이 ‘약자’ 내지 ‘하위존재’를 향하고 있음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죽어가는 동물’은 인간에 대해 약자인 것이다.
		② [라]의 의미 파악에 활용할 수 있는 [가]와 [나]의 연결된 의미를 잘 찾았는가? 지문 [가]와 [나]는 생태계와 사회가 지속되고 유지되기 위해서는 소외되고 약한 존재들에 대한 관심과 진심 어린 배려가 있어야 함을 설명하고 있다. 세계의 하위를 이루는 약한 존재들을 진지한 마음으로 이해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존중하는 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기본적 요건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가]와 [나]를 연계한 이와 같은 이

하위 문 항	채점 기준	배점
	해는 [라]에 등장하는바 단절감과 고통 속에 죽어가는 ‘나’라는 인물을 둘러싼 관계를 논하기 위한 바탕이 된다.	
	③ [라]에 나타난 ‘나’의 처지와 어려움을 정확히 이해하였는가? [라]의 소설에서 ‘나’는 빈촌을 떠나 도시로 왔지만 도시의 생활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녀는 심리적으로 매우 취약한 상태로서 [가]와 [나]가 말하는 사회적 약자 내지 하위 존재에 해당한다. 작품에서 ‘나’가 겪는 어려움은 도시의 인간관계와 관련이 있다고 추론할 수 있다. 의사와 같은 도시인이 보이는 형식적이고 무례한 태도가 ‘나’에게 단절감과 고통을 주고 있다는 뜻이다. ‘나’는 함께 사는 남편과의 관계에서도 필요한 이해와 배려를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로서, 세심한 돌봄이 필요하다. ‘나’가 진정으로 지향하는 것은 어머니로 표상되는 따뜻한 모성이며, 아파트 베란다 화분이라는 좁은 공간을 벗어나 땅에 뿌리를 내리고 하늘로 몸을 펼치는 일이다. 하지만 ‘나’는 어머니와 물리적, 공간적으로 분리된 채 화분 속에 갇혀 신음하는 상태에 있다. ‘나’의 이러한 처지와 소망을 바르게 이해하고, 남편과 의사 등의 주변인물들이 거기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성찰할 수 있어야 한다.	
	④ [가], [나]와의 연관 속에 [라]에 나타난 인물 간의 관계 양상을 정확히 분석하였는가? [가]와 [나]의 관점에서 약자 내지 하위 존재에 해당하는 인물은 ‘나’이며, 그와 주요한 관계를 맺는 작품 속 인물로는 어머니와 의사, 남편을 들 수 있다. 어머니는 ‘나’가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는 깊은 그리움의 대상이다. 따뜻한 살냄새로 기억되는 어머니는 추위와 외로움 속에 있는 ‘나’를 그대로 받아주고 보살펴줄 존재로 그려진다. 하지만 ‘나’는 어머니와 물리적으로 분리돼 있어 내적 소망을 성취하지 못한다. 어머니 역할을 대체할 만한, 주변의 관심과 돌봄이 필요한 상태인 것이다. ‘의사’는 환자로서 ‘나’를 치료하는 위치에 있는 인물이다. 아픔의 원인을 바르게 파악해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하지만 [라]의 의사가 ‘나’를 대하는 태도는 형식적이고 기계적이며 무례하기까지 하다. 약자에 대한 진심의 존중이 없는 이런 태도는 ‘나’의 아픔을 가중시킬 따름이다. ‘남편’은 식물로 변해가는 아내에게 약수를 길어다 주고 흙도 갈아주는 등 관심을 가지고 보살핀다. 표면적으로 볼 때 아내에게 필요한 보살핌을 제공한 것이라 할 수 있지만, 진정한 이해와 배려로 보기에 부족함이 있다. 그는 ‘나’의 아픔과 소망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며, 결과적으로 그녀가 쓸쓸하게 죽어가는 데 하나의 원인을 제공한다. 그가 화를 내거나 허공에 주먹질을 하는 모습은 ‘나’와의 심리적 단절감을 확인시켜 주는 요소로 볼 수 있다. 작품 속의 인간관계는 예외적인 존재를 둘러싼 특수한 관계로 치부할 수 없다. ‘나’를 둘러싼 인간관계를 [가], [나]와 관련하여 사회의 여러 약자와 하위 존재에 대한 문제로 확장해서 이해하는 것이 [라]에 대한 바른 독해가 된다.	
	정합적인 논지 전개 능력과 설득력 있는 표현 능력	
	⑤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적절히 잘 구성해서 짜임새 있고 설득력 있게 전개하고 있는가? 적절한 어휘 선택과 정확한 문장 구성, 자연스러운 문장 연결 등 언어적 표현력과 글쓰기 능력을 훌륭히 발휘하고 있는가?	

<채점 기준표>

평가	평가 내용
A+	100 ①, ②, ③, ④, ⑤ 모두 훌륭히 충족
A	95 ①에서 ⑤까지 모두 무난히 기술하였으나 한 사항이 다소 미흡함
B+	85 ①에서 ⑤까지 사항 중 네 가지 사항 충족
B	75 ①에서 ⑤까지 사항 중 세 가지 사항 충족
C	40 ①에서 ⑤까지 사항 중 두 가지 사항 충족
D	20 ①에서 ⑤까지 사항 중 한 가지 사항 충족
F	0 출제 의도와 전혀 무관한 답안 등은 최하

2024학년도 인문사회 I (KU논술우수자)

문제 1

※ [문제 1]: [가]와 [나]를 참고하여 [다]의 도표를 분석하시오. (401-600자) [40점]

[가]

재작년이던가, 여름날에 있었던 일이다. 날씨가 화창하여 밀린 빨래를 해치웠었다. 성미가 비교적 급한 나는 빨래를 하더라도 그날로 풀을 먹여 다려야지 그렇지 않으면 찢찢해서 심기가 홀가분하지 않다. 그날도 여름 옷가지를 빨아 다리고 나서 노곤해진 몸으로 마루에 누워 쉬려던 참이었다. 팔베개를 하고 누워서 서까래 끝에 열린 하늘을 무심히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다가 모로 돌아누워 산봉우리에 눈을 주었다. 갑자기 산이 달리 보였다. 하, 이것 봐라 하고 나는 벌떡 일어나, 이번에는 가랑이 사이로 산을 내다보았다. 우리들이 어린 시절 동무들과 어울려 놀이를 하던 그런 모습으로.

그건 새로운 발견이었다. 하늘은 호수가 되고, 산은 호수에 잠긴 그림자가 되었다. 바로 보면 굴곡이 심한 산의 능선이 거꾸로 보니 훨씬 유장하게 보였다. 그리고 숲의 빛깔은 원색이 낱알이 분해되어 멀고 가까움이 선명하게 드러나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랐다. 나는 하도 신기해서 일어서서 바로 보다가 다시 거꾸로 보기를 되풀이했었다.

이러한 동작을 누가 지켜보고 있었다면 필시 미친 중으로 여겼을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나는 새로운 사실을 캐낼 수 있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람을 대하거나 사물을 보고 인식하는 것은 틀에 박힌 고정관념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알아 버린 대상에서는 새로운 모습을 찾아내기 어렵다. 아무개 하면, 자신의 인식 속에 들어와 이미 굳어 버린 그렇고 그런 존재로밖에 볼 수가 없는 것이다. 이견 얼마나 그릇된 오해인가. 사람이나 사물은 끝없이 형성되고 변모하는 것인데.

그러나 보는 각도를 달리함으로써 그 사람이나 사물이 지닌 새로운 면을, 아름다운 비밀을 찾아낼 수 있다. 우리들이 시들하게 생각하는 그저 그렇고 그런 사이라 할지라도 선입견에서 벗어나 맑고 따뜻한 ‘열린 눈’으로 바라본다면 시들한 관계의 뜰에 생기가 돌 것이다.

- 고등학교 『화법과 작문』

[나]

좋은 논쟁이란 ‘상호 부딪침’이 있는 논쟁을 뜻한다. 그러자면 논점이 팽팽하게 부딪쳐야 한다. 서로의 의견이 갈리는 부분에서 만나 마치 싸움터에서 장수들이 겨루듯 자신의 논리로 상대와 맞서 싸워야 한다.

논쟁이 생산적일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 ‘만남’과 ‘부딪침’에 있다. 서로의 생각이 얼마나 다른지, 어느 부분이 어떻게 다른지는 서로 견주어 봐야 알 수 있는 일이다. 그런 이유로 논쟁은 싸움 같지만 사실은 상호 이해의 장이요, 청중들에게는 즐거움과 교육의 장이다. 서로 부딪치는 지점을 논쟁 용어로는 ‘접점’이라고 하는데, ‘상호 갈등 해소를 위한 개념적 장소’쯤으로 풀이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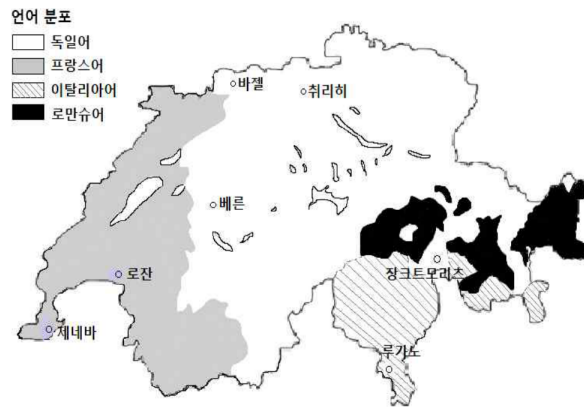
이러한 접점에서 만나지 않는 사람들, 즉 다른 의견을 듣지 않는 사람들은 마치 메아리 방에서 살 듯 자신의 소리만 듣고 살 가능성이 크다. 아니면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끼리 만나 동종 교배 하듯 서로 동의하며 기존의 입장을 기형적으로 견고하게 다질지도 모른다.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 각각의 집단 편향(집단 극화)이나 쏠림 현상이 강화되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인터넷 시대에 들어서 더욱 심화되고 있다. 최근의 각종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전과는 다르게 사람들은 소수의 여론 주도자에게 끌려다니지 않고 자신과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게 동조하면서 기존의 의견과 입장을 더욱더 강화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사람들의 의견이 극단적으로 나뉘는 현상마저 발생하고 있다.

- 고등학교 『독서』

[다]

[도표 1]



[스위스]

스위스는 4개의 공용어와 방언이 사용되고 있으나, 지방의 특성을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지방자치제가 발달해 있어 갈등을 찾아보기 어렵다.



[벨기에]

벨기에는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두 지역(플랑드르, 왈롱)으로 나뉘어 있는데, 산업과 소득 수준의 차이로 인해 두 지역 간의 경제적 격차가 크고 언어갈등도 심화되고 있다.

- 고등학교 『세계지리』

[도표 2]

※ 국가별 민주주의 지수

완전한 민주주의 (8.0 이상)	노르웨이, 스위스, 핀란드, 영국, 미국
미흡한 민주주의 (4.0~8.0 미만)	한국, 일본, 벨기에, 인도, 멕시코, 타이, 터키
권위주의 (4.0 미만)	베트남, 수단, 러시아, 중국, 북한

(이코노미스트, 2015)

[도표 3]

※ 주요 국가 행복 지수 순위

순위	국가	지수
1	덴마크	7.526
2	스위스	7.501
3	아이슬란드	7.498
4	노르웨이	7.413
5	핀란드	7.404
6	캐나다	7.339
7	네덜란드	7.334
8	뉴질랜드	7.313
9	호주	7.291
10	스웨덴	7.104
...		
18	벨기에	6.929
53	일본	5.921
58	대한민국	5.835

(국제연합 지속가능발전 해법 네트워크(SDSN), 2016)

- 고등학교 『통합사회』

■ 예시 답안

[가]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상대방이나 사물의 새로운 가치와 긍정적 모습을 발견하는 것의 중요성을, [나]는 서로 의견이 달라 부딪치는 접점이 오히려 상대에 대한 이해와 생산적 공존을 가능하게 하는 동력이 될 수 있음을 말하고 있다. [도표1]은 네 개의 언어권으로 나뉘어 있으나 평화롭게 공존하며 발전하고 있는 스위스와, 언어가 다른 두 지역으로 나뉘어 서로 반목하면서 경제적 불균형과 갈등 상황이 심화되고 있는 벨기에의 대비된 상황을 보여준다. [도표2]와 [도표3]은 국가별 민주주의 수준과 행복지수를 각각 제시하는데, 스위스는 이 두 지표에서 모두 최상위권인 반면 벨기에는 스위스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위치에 있음을 알 수 있다. [가]와 [나]의 관점에서 벨기에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타자의 긍정적인 면과 접점의 가치를 발견하지 못한 결과 상호 갈등이 심해지고 이로 인해 민주주의 수준이나 행복지수 등에서 스위스에 뒤처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스위스는 벨기에와 마찬가지로 언어적 차이로 인해 갈등이 생길 법한 상황에서도 서로의 차이와 상대가 지닌 가치를 인정하고 타협점을 찾아 상생 공존함으로써 높은 수준의 민주주의와 행복지수를 성취했다고 할 수 있다. [598자]

■ 채점 기준

[문제 1]은 타자에 대한 두 가지 태도를 설명하는 [가]와 [나]의 요지를 잘 이해하고 활용해 언어로 인해 경제적 권역과 지역이 나누어져 있는 [다]의 스위스와 벨기에의 상황을 설명하면서 이를 [도표 2] 민주주의 지수, [도표 3] 행복지수와 연결해 분석하는 것을 요구한다.

평가 영역	평가 항목 내용	배점
[가], [나]의 핵심 내용 이해와 [다]에 대한 적용	① [가]와 [나]의 핵심 요지와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정확하게 파악하였는가? [가]와 [나]의 논지는 유사하며 주장도 선명하다. 두 지문은 우리가 잘 아는 사람과 사물을 대하는 열린 태도와 닫힌 태도를 비교하면서 선입견을 벗어나 상대를 이해하고 배우는 것이 관계를 증진시킬 뿐 아니라 결국 이런 접점을 수용할 때 나의 발전도 가능함을 시사하고 있다. 두 지문의 공통 주장과 근거를 잘 이해하면서 이를 도표 분석에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40점
	② [가]와 [나]를 연결하면서 도표 분석에 적절하게 적용하였는가? [가]는 하나의 시선으로 사람과 사물을 대하는 ‘고정관념’과, ‘열린 눈’, 즉 선입견을 탈피해 새로운 면을 발견하는 창의적 태도, 그리고 [나]는 대립하는 상대와의 접점을 수용하면서 공존하는 개방성과, 집단편향에 사로잡혀 상대를 배척하는 태도를 서술하고 있다. 이러한 공통된 논지를 [도표 1]의 두 공동체에 적용해서 설명해야 한다. 다음으로 [도표 2], [도표 3]에서 두 공동체의 주요 지표 차이가 벌어지는 이유를 [가]와 [나] 논지를 통해 분석하여야 한다.	
	③ [가]와 [나]에 나오는 대립적 태도를 [도표 1]의 두 공동체에 적용하였는가? 스위스는 4개의 언어권으로 분할되어 있지만, 각자의 특성을 살리면서 공존하는 모습이, [가]에서 열린 눈으로 서로를 인정하면서 지방자치제를 발달시키는 태도와 연관된다. 반면 벨기에도 비슷한 상황이지만 산업과 소득의 차이로 인한 경제 격차가 크다는 점에서 상대와의 접점을 해소하지 못하고 갈등하는 대립적 공동체임을 알 수 있다. [가]와 [나]의 논지를 [다]의 두 공동체의 차이를 설명하는 데 활용해야 한다. 동시에 민주주의 수준이 한 공동체의 갈등을 심화시키는 기제가 될 수 있으며 이는 그 사회의 행복지수에 반영될 수 있음을 언급했다면 좋은 답안일 수 있다.	
[다] 도표의 내용 이해, 그리고 [가], [나], [다]의 유기적 연결성	④ 언뜻 국가별 민주주의 지수나 행복지수는 물질적 부나 정치적 안정을 통해 결정되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공동체 구성원의 조화와 협력 관계다. 특히 스위스나 벨기에처럼 민족과 언어가 다른 사람들이 공동체를 만드는 경우 열린 눈과 수용적 태도는 더욱 중요하다. [가]와 [나]의 두 가지 상반된 태도를 스위스와 벨기에의 현재 상황을 설명하는 데 적용하여야 하며, 더 나아가 [도표 2], [도표 3]에 제시된 민주주의 수준과 공동체 구성원의 행복지수와도 연관될 수 있음을 잘 설명해야 한다.	

평가 영역	평가 항목 내용	배점
정합적인 논지 전개 능력과 설득력 있는 표현 능력	⑤ 지문 요지와 핵심 개념을 도표 내용 분석에 활용하면서 일관성 있고 설득력 있게 논지를 전개하고 있는가? 적절한 어휘 선택과 정확한 문장 구성, 논리적인 문장 연결 등 언어적 표현력과 글쓰기 능력을 훌륭히 발휘하고 있는가?	

〈채점 기준표〉

평가		평가 내용
A+	100	①, ②, ③, ④, ⑤ 모두 훌륭히 충족
A	96	①에서 ⑤까지 모두 무난히 기술하였으나 한 사항이 다소 미흡함
B+	91	①에서 ⑤까지 사항 중 네 가지 사항 충족
B	85	①에서 ⑤까지 사항 중 네 가지 사항은 충족하였으나 그중 한 사항이 다소 미흡함
C	77	①에서 ⑤까지 사항 중 세 가지 사항 충족
D	60	①에서 ⑤까지 사항 중 두 가지 사항 충족
E	40	①에서 ⑤까지 사항 중 한 가지 사항 충족
F	0	출제 의도와 전혀 무관한 답안 등은 최하

문제 2

※ 제시문 [가], [나]는 앞 문항(문제 1)을 참고하십시오.

※ [문제 2]: [가]와 [나]의 시각에서 [라]에 대하여 논하십시오. (801-1,000자) [60점]

[라]

그 무렵 집에 드나들던 파출부가 어느 날 나한테 이런 소리를 했다.

“세상 사람들이 눈이 멀어도 분수가 있지. 왜 사모님 같은 분을 효부 표창에서 빠뜨리느냐 말예요. 별거 아닌 사람들이 다 효자 효녀 효부라고 신문에 나고 상금도 타던데.”

그 여자가 순진하게 분개하는 소리를 들으며 나는 나의 완벽한 위선에 절망했다. 나는 막다른 골목에 쫓긴 도둑이 살의를 품고 돌아서듯이 그 여자에게 돌아서서 무서운 얼굴로 말했다.

“오늘 우리 어머니 목욕을 좀 시키고 싶은데 아줌마가 좀 도와줘야겠어요.”

“그러면요. 도와 드리고말고요.”

“목욕탕에 물 받으세요.”

나는 벌써부터 내 속에서 증오와 절망적인 쾌감이 지글지글 끓어오르는 걸 느끼고 있었다. 아줌마 보는 앞에서 시어머니의 옷부터 벗기기 시작했다. 조금도 인정사정 두지 않고 거칠게 함부로 다루었다. 목욕 한번 시키려면 아이들까지 온 집안 식구가 총동원되어 좋은 말로 어르고 달래가며 아무리 참을성 있고 부드럽게 다루다가도 종당엔 다소 폭력적으로 굴어야 겨우 그게 가능했다. 그러나 이번엔 처음부터 폭력적으로 다루기로 작정하고 있었다. 그분도 내 살기등등한 태도에 뭔가 심상치 않은 걸 느끼고 그 어느 때보다도 심한 반항을 했다. 믿을 수 없을 만큼 강한 힘으로 저항했지만 나 역시 거침없이 증오를 드러내니까 힘이 무력무력 솟았다. 옷 한 가지를 벗겨 낼 때마다 살갗을 벗겨 내는 것처럼 절절한 비명을 질렀다. 보다 못한 아줌마가 제발 그만해 두라고 애걸했다. 알지 못하면 가만있어요. 이 늙은이는 이렇게 해야 돼요. 나는 씨근대며 말했다. 그리고 아줌마도 내 일을 도울 것을 명령했다. 노인은 겁에 질려 목신 소리로 갓난아기처럼 울었다. 발가벗긴 노인을 반짝 들여다 탕 속에 집어넣고 다짜고짜 때를 밀기 시작했다. 나 죽는다. 나 죽어. 저년이 나 죽인다. 노인은 온 동네가 떠나가게 비명을 질렀다. 나는 그러면 그럴수록 더 모질게 때를 밀었다.

“너무하세요. 그렇게 아프게 밀 게 뭐 있어요?”

아줌마가 노인 편을 들었다. 그녀는 이제 아무 도움도 안 됐다. 혼비백산한 얼굴로 구경만 했다.

“알지 못하면 가만히나 있으라니까요. 아무리 살살 밀어도 죽는시늉할 게 뻔해요.”

골치가 빠개질 듯이 멍하고 귀에서 잉잉 소리가 났다. 나는 남의 일처럼 내가 미쳐 가고 있다고 생각했다. 골속에 아니 온몸에 가득 찬 건 증오뿐이었다. 그런데도 나는 자꾸자꾸 증오를 불어넣고 있었다. 마치 터뜨릴 작정하고 고무풍선을 불듯이. 자신이 고무풍선이 된 것처럼 파멸 직전의 고통과 절정의 쾌감을 동시에 느끼고 있었다. 별안간 아찔하면서 온몸에서 힘이 쭉 빠졌다. 그런 중에도 나는 냉혹한 미소를 잃지 않았다. 이래도 나를 효부라고 할 테냐고 묻고 싶었다.

그날 이후 나는 몸져누웠다. 파출부도 다시는 우리 집에 오지 않았다. 몸살에 신경 안정제의 후유증까지 겹쳐 정신과 치료까지 받지 않으면 안 되었다. 집안 꼴이 엉망이 되었다. 정신과 의사도 그런 귀뜸을 했지만, 시어머니를 한동안 어디로 보낼 수 있었으면 하는 논의가 본격화된 것은 그분의 친정 조카들로부터였다.

※ 중간 부분 줄거리 : ‘나’의 남편은 시어머니가 지낼 수 있는 양로원과 정신 치료를 겸한 수용 기관을 알아보기 시작했고, 일요일마다 괜찮다는 수용 기관을 찾아다녔지만 번번이 실망하여 돌아온다. 어느 일요일, 남편이 시어머니의 친정 쪽에서 추천해준 어느 암자를 찾아가는 길에 ‘나’도 동행한다. 부부는 암자로 향하는 시골길을 걷다가 한 구멍가게에 들어가 땀을 식힌다.

나는 주인을 찾아 가게 터 뒤로 돌아갔다. 좀 떨어진 데 초가가 보였다. 초가지붕 위엔 방금 떠오른 보름달처럼 풍만하고 잘생긴 박이 서너 덩이 의젓하게 자리잡고 있었다.

“여보 저 박 좀 봐요. 해산 바가지 했으면 좋겠네.”

나는 생뚱한 소리로 환성을 질렀다.

“해산 바가지?”

남편이 멍청하게 물었다.

“그래요. 해산 바가지요.”

실로 오래간만에 기쁨과 평화와 삶에 대한 믿음이 샘물처럼 괴어 오는 걸 느꼈다.

내가 첫애를 났을 때 시어머님은 해산달을 짚어 보고 선달이구나, 좋을 때다, 곧 해가 길어지면서 기저귀가 잘 마를 테니, 하시더니 그해 가을 일부러 사람을 시켜 시골에 가서 해산 바가지를 구해 오게 했다.

“잘생기고, 여물게 굳고, 정한 데서 자란 햇바가지여야 하네. 첫 손자 첫국밥 지을 미역 빨고 쌀 씻을 소중한 바가지니까.”

이러면서 후한 값까지 미리 쳐주는 것이었다. 그럴 때의 그분은 너무 경건해 보여 나도 덩달아서 아기를 가졌다는 데 대한 경건한 기쁨을 느꼈었다. 이윽고 정말 잘 굳고 잘생기고 정갈한 두 짝의 바가지가 당도했고, 시어머님은 그걸 신령한 물건인 양 선반 위에 고이 모셔 놓았다. 또 손수 장에 나가 보얀 젓빛 사발도 한 쌍을 사다가 선반에 얹어 두었다. 그건 해산 사발이라고 했다.

나는 내가 낳은 첫아이가 딸이라는 걸 알자 속으로 약간 쾅겼다. 외아들을 둔 시어머니가 흔히 그렇듯이 그분도 아들을 기다렸을 직하고 더구나 그분의 남다른 엄숙한 해산 준비는 대를 이을 손자를 위해서나 어울림 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퇴원한 나를 맞아들이는 그분에게서 섭섭한 티 따위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었다. 그 잘생긴 해산 바가지로 미역 빨고 쌀 씻어 두 개의 해산 사발에 밥 따로 국 따로 퍼다가 내 머리맡에 놓더니 정성껏 산모의 건강과 아기의 명과 복을 비는 것이었다. 그런 그분의 모습이 어찌나 진지하고 아름답던지, 비로소 내가 엄마 됐음에 황홀한 기쁨을 느낄 수가 있었고, 내 아기가 장차 무엇이 될지는 몰라도 착하게 자라리라는 것 하나만은 믿어도 될 것 같은 확신이 생겼다. 때문에 인줄을 걸고 부정을 기(忌)하는 삼칠일 동안이 끝나자 해산 바가지는 정결하게 말려서 다시 선반 위로 올라갔다. 다음 해산 때 쓰기 위해서였다. 다음에도 또 딸이었지만 그 희색이 만면하고도 경건한 의식은 조금도 생략되거나 소홀해지지 않았다. 다음에도 딸이었고 그다음에도 딸이었다. 네 번째 딸을 낳고는 병원에서 밤새도록 울었다. 의사나 간호사까지 나를 동정했고 나는 무엇보다도 시어머님의 그 경건한 의식을 받을 면목이 없어서 눈물이 났다. 그러나 그분은 여전히 희색이 만면했고 경건했다. 다음에 아들을 낳았을 때도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닌 똑같은 영접을 받았을 뿐이었다. 그분은 어디서 배운 바 없이, 또 스스로 노력한 바 없이도 저절로 인간의 생명을 어떻게 대접해야 하는지를 알고 있는 분이었다. 그분이 아직 살아 있지 않은가. 그분의 여생도 거기 합당한 대우를 받아 마땅했다. 나는 하마터면 큰일을 저지를 뻔했다. 그분의 망가진 정신, 노추한 육체만 보았지 한때 얼마나 아름다운 정신이 깃들었었나를 잊고 있었던 것이다. 비록 지금 빈 그릇이 되었다 해도 사이비 기도원 같은 데 맡겨 있지도 않은 마귀를 내쫓게 하는 수모와 학대를 당하게 할 수는 없는 일이었다.

나는 남편이 막걸릿병을 다 비우기도 전에 길을 재촉해 오던 길을 되돌아섰다. 암자 쪽을 등진 남편은 더 이상 땀을 흘리지 않았다. 시어머님은 그 후에도 삼 년을 더 살고 돌아가셨지만 그동안 힘이 덜 들었던 얘기는 아니다. 그분의 망령은 여전히 해괴하고 새록새록 해서 감당하기 힘들었지만 나는 효부인 척 위선을 떨지 않음으로써 조금은 숨구멍을 만들 수가 있었다. 너무 속상할 때는 아이들이나 이웃 사람의 눈치 볼 것 없이 큰 소리로 분풀이도 했고 목욕시키거나 옷 갈아입힐 때는 아프지 않을 만큼 거칠게 다루기도 했다. 너무했다 뉘우쳐지면 즉각 애정 표시에도 인색하지 않았다.

위선을 떨지 않고 마음껏 못된 며느리 노릇을 할 수 있고부터 신경 안정제가 필요 없게 됐다. 시어머님도 나를 잘 따랐다. 마치 갓난아기처럼 천진한 얼굴로 내 치마꼬리만 졸졸 따라다녔다. 외출했다 늦게 돌아오면 그분은 저녁도 안 들고 어린애처럼 칭얼대며 골목 밖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곤 했다. 임종 때의 그분은 주름살까지 말끔히 가서 평화롭고 순결하기가 마치 그분이 이 세상에 갓 태어날 때의 얼굴을 보는 것 같았다. 나는 마치 그분의 그런 고운 얼굴을 내가 만든 양 크나큰 성취감에 도취했었다.

- 고등학교 『문학』

■ 예시 답안

[가]는 같은 사물에 대해서도 각도를 달리하면 일상적이고 틀에 박힌 고정관념을 벗어난 새로운 면모가 보인다고 말한다. [나]는 서로 다른 생각과 의견이 만남과 부딪침을 통해서 접점을 발견하면, 상호 간 차이점을 이해하고 갈등을 해소할 수 있다는 긍정적 효과를 말한다. [가]와 [나]를 종합하면, 고정된 틀을 고집하는 대신 상호 부딪침을 통해 상대방과의 접점을 발견하고 선입견에서 벗어나 열린 눈으로 상호 이해를 도모할 수 있다는 것이다.

[라]에서 머느리인 ‘나’는 치매를 앓는 시어머니를 맡길 수용 기관을 보러 갔다가 우연히 시골 초가지붕 위의 박을 보고서 시어머니가 해산을 앞둔 ‘나’를 위해 정성스럽게 해산 바가지를 준비하고 그 해산 바가지로 미역과 쌀을 씻어 음식을 준비해주었던 일을 떠올린다. 나는 시어머니가 보여주었던 생명에 대한 존중과 예의를 깨달음으로써 그분을 이해하게 되고 두 사람의 갈등이 해소된다.

처음에 ‘나’는 치매를 앓는 시어머니의 망령을 참지 못하고 폭력적으로 대응하며 증오심을 느낀다. 이때의 ‘나’는 [나]에서 보듯이 시어머니와 서로 대립하며 부딪치지만 ‘자신만의 소리만 듣고’ 있는 상태로 서로 접점을 찾지 못한다. 심지어 ‘나’는 시어머니를 맡길 수용 기관을 찾아서 시어머니와 거리를 두려고 한다. 그러나 해산 바가지의 기억은 ‘나’와 시어머니가 첫 생명을 준비하면서 공유했던 행복한 경험을 생각나게 했다. 즉, 해산 바가지는 ‘나’에 대한 시어머니의 존중과 예우를 상징하며, 두 사람이 서로 존중하며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소통했던 경험의 접점이 되었고 동시에 ‘나’에게 열린 눈으로 생명을 예우했던 시어머니의 인품과 아름다운 마음씨를 발견하게 하는 매개가 되었다. 이로부터 ‘나’는 [가]의 문장에서 보듯 거꾸로 보기를 통해 자신 역시 시어머니의 생명을 존중해야 할 당위성을 깨닫는다. ‘나’는 더 이상 위선이 아닌, 솔직하고 진정한 마음으로 시어머니를 돌보고 시어머니 역시 ‘나’를 잘 따르다가 행복한 임종을 맞는다. [984자]

■ 채점 기준

[문제 2]는 [가]와 [나]의 시각을 반영하여 [라]에 등장하는 인물과 상황의 변화를 논평하는 문제이다. [문제 2] 답안의 우수성은 다음과 같은 기준의 충족 여부를 토대로 평가할 수 있다.

평가 영역	평가 항목 내용	배점
[가]와 [나]에 대한 이해	① [가]와 [나]의 핵심 개념을 바르게 파악하였는가? [가]는 사물을 거꾸로 보았을 때 뜻밖에 새로운 관점을 발견할 수 있는 것과 같이, 각도를 달리해서 보았을 때 일상적인 인식과 틀에 박힌 고정관념을 벗어난 새로운 면모를 볼 수 있음을 말하였다. 그리고 [나]는 서로 다른 생각과 의견이 논쟁의 장에서 ‘만남’과 ‘부딪침’을 경험할 때, 팽팽한 논쟁 가운데 서로 ‘접점’을 발견하고자 노력함으로써 상호 간의 차이점을 이해하고 갈등을 해소할 수 있다는 좋은 논쟁의 생산적이고 긍정적 효과에 대해 말하고 있다.	60점
	② [라]의 의미 파악에 활용할 수 있는 [가]와 [나]의 연결 고리를 찾았는가? 지문 [가]와 [나]는 사람과 사물 사이의 ‘상호 부딪침’의 긍정적 효과와 이로부터 획득할 수 있는 ‘열린 눈’의 가능성을 주요한 논제로 삼는다. 두 지문은 일상적이고 고정된 틀을 고집하는 대신 ‘상호 부딪침’을 통해 상대방과의 ‘접점’을 적극적으로 모색한다는 점과 나의 고정된 시점에서 벗어나 ‘거꾸로 보기’처럼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주도성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공통성을 지닌다. 즉, 부딪침을 통해 상대방과의 접점을 발견하고, 틀에 박힌 자신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열린 눈’으로 상대방이 가진 새로운 면을 찾음으로써 상호 이해와 갈등 해소를 나아간다는 것이다. 이러한 연결 고리를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평가 영역	평가 항목 내용	배점
[라]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말과 행동에 대한 이해	③ [라]에 나타난 사건과 인물의 변화 양상을 정확하게 이해하였는가? [라]의 소설은 치매를 앓는 시어머니를 포용하지 못하고 수용 기관에 맡기려던 며느리 ‘나’가 우연히 ‘해산 바가지’에 대한 기억을 매개체로 삼아 그 옛날 시어머니가 자신이 해산하고 아이들을 낳을 때 보여주었던 생명에 대한 존중과 예의를 되돌아보게 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나’는 치매가 심한 시어머니를 돌보는 일에 지쳐서 시어머니를 맡길 수용 기관을 보러 갔다가 시골 마을 초가지붕 위의 박을 보고 시어머니가 자신의 출산을 위해 정성스럽게 ‘해산 바가지’를 준비해주었던 일을 기억해낸다. ‘해산 바가지’는 ‘나’에 대한 시어머니의 존중과 예우를 상징하며, 두 사람의 경험을 이어주는 접점이 되고 동시에 ‘나’에게 ‘거꾸로 보기’를 할 수 있는 ‘열린 눈’을 찾아주는 매개가 된다. ‘나’는 경건함마저 느껴졌던 시어머니의 아름다운 마음씨에 다시 감사하게 되었고, 다시 집에서 시어머니를 돌보기로 한다. ‘나’는 더 이상 의무감이나 위선을 바탕으로 행하는 효도가 아니라, 솔직하고 진정한 마음으로 시어머니에 대한 존중과 예의를 표현할 수 있게 되었다.	
[가]와 [나]의 논지에 근거한 [라]의 분석	④ [가]와 [나]의 관점을 반영하여 [라]에 나타난 사건의 흐름과 인물의 심리 변화 양상을 논하였는가? [가]와 [나]의 관점에서 보면, ‘나’의 심리 변화와 사건의 흐름을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나’는 치매를 앓는 시어머니의 망령스런 행동과 거센 저항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폭력적으로 대응하며 증오심을 느낀다. 이때의 ‘나’와 시어머니는 [나]에서 설명하듯 서로 대립하며 부딪치고 있지만 ‘마치 메아리 방에서 살 듯 자신만의 소리만 듣고’ 있는 상태로 서로 접점을 찾지 못한다. 심지어 ‘나’는 시어머니를 맡길 수용 기관을 찾아서 시어머니와 거리를 두려고 한다. 그러나 우연히 떠오른 해산 바가지의 기억은 ‘나’와 시어머니가 첫 생명을 준비하면서 공유했던 행복한 경험을 생각나게 했고, ‘나’가 시어머니의 아름다운 마음씨를 다시 깨닫게 된 접점이 되었다. 즉, ‘해산 바가지’는 두 사람이 서로 존중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소통하며 공유했던 아름다웠던 시절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으로 파악할 수도 있다. 이로부터 ‘나’는 [가]의 문장에서 보듯 ‘거꾸로 보기’를 통해 선입견에서 벗어나 ‘열린 눈’으로 자신이 낳은 생명을 예우했던 시어머니의 인품과 아름다운 마음씨를 떠올리게 되었고 자신 역시 시어머니의 생명에 대해 예우해야 할 당위성을 깨닫는다. ‘나’는 시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하고 다시 돌보았고 시어머니 역시 ‘나’를 잘 따르며 두 사람의 갈등이 해소되었음이 나타난다.	
정합적인 논지 전개 능력과 설득력 있는 표현 능력	⑤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적절히 잘 구성해서 짜임새 있고 설득력 있게 전개하고 있는가? 적절한 어휘 선택과 정확한 문장 구성, 자연스러운 문장 연결 등 언어적 표현력과 글쓰기 능력을 훌륭히 발휘하고 있는가?	

〈채점 기준표〉

평가	평가 내용
A+	100 ①, ②, ③, ④, ⑤ 모두 훌륭히 충족
A	96 ①에서 ⑤까지 모두 무난히 기술하였으나 한 사항이 다소 미흡함
B+	91 ①에서 ⑤까지 사항 중 네 가지 사항 충족
B	85 ①에서 ⑤까지 사항 중 네 가지 사항은 충족하였으나 그중 한 사항이 다소 미흡함
C	77 ①에서 ⑤까지 사항 중 세 가지 사항 충족
D	60 ①에서 ⑤까지 사항 중 두 가지 사항 충족
E	40 ①에서 ⑤까지 사항 중 한 가지 사항 충족
F	0 출제 의도와 전혀 무관한 답안 등은 최하

써봄

기출로 연습했다면, 이제 써보고 바로 첨삭받자.

Google Gemini 기반 한국어 논술 자동 첨삭 서비스

01

4개 영역 점수

논리구조 · 근거타당성 · 주장명확성 · 언어표현 영역별로 점수를 매겨 줍니다.

02

상세 피드백

강점, 개선점, 구체적인 제안사항까지 한 번에 확인합니다.

03

일괄 첨삭

교사·강사는 학생 답안을 최대 10편까지 한꺼번에 올려 처리할 수 있습니다.

04

간편한 업로드

PDF · DOCX · TXT 파일을 그대로 올리면 됩니다.

이용 안내

무료 체험	회원가입 시 3회 무료 분석
개인 플랜	월 9,900원
교사 플랜	월 29,900원

논술 수험생 · 논술 교사와 강사 · 학원과 교육기관



writegrow.net

QR 코드를 스캔하면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